

## 국제기구 Common Fund for Commodities 44차 정기 자문회의 참가

주동주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1. 출장자: 국제산업협력실 주동주 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09. 7. 5 - 7. 13 (7박 9일)
3. 출장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4. 출장목적: 정부간 국제기구인 상품공동기금(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의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위원으로서 제44차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참가
5. CFC 조직 개요 및 출장 업무 내용
  - CFC는 개발도상국들의 자원개발과 일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 6월 UN이 결의하여 만든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2009년 1월 현재 107개 국가와 유럽공동체(EC), 아프리카연맹(AU) 등의 다자기구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음 (UN 결의는 1980년에 이루어졌으나, 참가국 승인 문제로 이행이 지연되어 실제 설립은 1989년에야 이루어졌음).

※ 홈페이지 <http://www.common-fund.org>

- 동기구의 조직은 총회(Governing Council),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무국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음.
  - 총회는 전체 회원국 및 회원 기구 대표로 구성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년에 1회 정기 회의를 가짐.
  - 집행위원회(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28인의 회원국 및 회원 기구 대표로 구성되며 CFC 운영과 관련된 일상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함.
  - 자문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CFC의 사업에 관해 집행위원회를 조언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함.
  -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은 임기 2년으로 현재는 탄자니아 출신의 외교관(전 주일본대사)인 Ali Mchumo임.
- 본인의 이번 출장 업무는 자문위원회의 2009년 하반기 정기회의(44차 정기회의) 참석이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요청해온 원조 사업을 검토하고 CFC의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일이 주업무였음.

## 6. CFC 자문위원회 구성 및 44차 회의 경과

- 7월 6일 Ali Mchumo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CFC 본 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44차 정기회의가 개최됨.
- 자문위원회는 대륙별, 직능별 안배를 고려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의 정부, 업계, 학계에서 대략 균등한 비율로 선정된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3차 회의에서 선정된 다음 임원이 2년 임기 동안 위원회를 이끌어감.

**Chairperson: Mr. Gangan Boriah (India)**

**Vice-Chairperson: Mr. Hans Dieter Seibel (Germany)**

**Rapporteur: Ms. Paulette Lyons Dodd (Jamaica)**

**Vice-Rapporteur: Mr. Dong-Joo Joo (Republic of Korea)**

- Ali Mchumo 사무총장은 환영 인사에서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다자간 국제금융기구들도 개발 지원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함.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는 일차산품 가격의 불안정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일차산품 가격 안정을 주요 임무의 하나로 하는 CF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함.
- 이 점에서 최근의 상황에 맞추어 CFC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CFC 총회가 자문위원회에 이 사항을 자문해주도록 요청하였다고 언급함.
- 이어서 Gangan Boriah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43차 자문위원회 의결 사항을 7월에 개최된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였음을 알림. 이후 본격적인 44차 회의 안건 심의에 들어감
-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국측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개도국 원조 요청 사업 중 다음 3건을 선정하여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결정함.

우선 순위	Project Code	Project Title
1	CFC/ICAC/37	Improving Production Efficiency in Small-Scale Cotton Farming Systems in East Africa (Kenya and Mozambique) through Vertical Integration of the Supply

		Chain
2	CFC/ICO/46	Competitive Coffee Enterprise Program - Guatemala and Jamaica
3	CFC/FIGTF/25	Pilot Project on Processing Fruit & Vegetable Chips Using Vacuum Oil-bath Dehydration Technology

- 이밖에 다음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승인 사업(Fast Track Projects)으로 사무총장이 조속히 승인하여 시행토록 건의함.
- ◆ Preliminary Feasibility Evaluation for Utilization of Sisal Liquid Waste (juice) for the Production of Pesticides and Veterinary Drugs (CFC/FIGHT/30FT)
- ◆ Future Forum 2020: A Supply Chain Collaboration on the Hard Fibres Group (Abaca, Coir, Jute, Kenaf and Sisal) (CFC/FIGHT/31FT)
- 회의 과정에서는 13인의 전문가가 특정 상품별로 각각 1차 Commenter, 2차 Commenter를 맡아 회의를 주도하고 이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 합의체로 최종 결정을 내림. 본인은 Metals, Fish에 대해 1차 Commenter, Timber에 대해 2차 Commenter를 맡음.
-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총장이 요청한 CFC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 안건에 대해 사무국에서 작성한 초안 문건을 기초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최종 문안을 채택하였음 (추후 CFC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기타 안건으로 11월에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CFC 창설 20주년 기념 행사 건, 5개년 재정계획 및 진행중인 사업 점검, 그리고 대륙별로 개최되는 사업 평가 회의 건 등을 논의하였음.

## 7. 출장 성과 및 제언

- CFC는 일차산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UN이 결의하여 만든 국제기구이나 미국, 캐나다 등이 개발도상국 주도에 반발해 가입을 하지 않은 관계로 납입자본금이 1억 7,800만 달러 (2003년), 사무국 상근요원이 30여명 수준인 소규모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는 111만 달러(0.63%)를 출자하였음.
- 그러나 CFC가 지원하는 사업은 관련 개발도상국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들로서 각국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CFC의 지원금 그 자체는 소규모 액수이나 국제적으로 승인된 사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종자돈(seed money)의 역할을 함.
- 자문위원회는 규정상 집행위원회에 조언하는 자문기구이나 실제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집행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일차 심의기구임.
- 따라서 각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FC 집행위원과 자문위원에 자국측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위직 인사를 추천하고 있음.
-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집행위원과 달리 자문위원은 국가 대표라는 개념이 아닌 전문가 개념으로 선정되긴 하나, 한국측 추천위원이 선임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됨.
- 한국은 향후 국제기여 확대를 통해 세계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바, 동기구와 같은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더욱 늘려나가야 할 것임.

- 특히 CFC와 같은 개발도상국 관련 전문기구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미지 구축 효과가 큰 만큼, 개발도상국 전문가를 확보하여 향후에도 의사결정기구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큼.
- 동기구의 사업은 농림수산업과 광업 등 일차산업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일차산업의 제조업 연계를 통한 공업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업화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도 안건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함 (안건 제안자인 개도국 정부와 상품별 국제기구 등에 접촉).
- 이번 회의에서 본인은 일차 산업의 관계자는 아니나 장기간 개발도상국 문제를 연구해온 개발 전문가로서 토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러 안건의 적절한 평가와 선정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함.
- Ali Mchumo 사무총장은 금년 8월 13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 이미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문을 보냈음을 언급하였으며, 본인을 통해 방문 일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음.
- 다음 정기회의는 2010년 1월에 개최되며 자문위원들의 소속 대륙별로 사업평가회의가 열릴 때 참석이 요청됨.
- 본인은 아시아 지역의 자문위원으로서 11월에 인도에서 개최되는 사업 평가회의에 참석을 요청 받았으며, CFC측에서 추후 세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식 요청 문서를 보내겠다고 언급하였음.